

2021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8. 24.(화),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1층)
- ▣ 출석위원 : 장석하(위원장), 남해경, 남효대, 백종오, 양은경, 위광철,
이상석, 조인숙, 진혜영, 최종덕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고지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 의결방식 및 회의록 공개

1. 법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서산 보원사지(사적)」 종합정비사업(2단계) |
| 2 | 「부여 나성(사적)」 성곽(동나성 치부분) 정비공사 |
| 3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훈련청 및 군기고 복원 |
| | |

1.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 사업(2단계)

가. 제안사항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서산 보원사지」 정비사업(2단계)에 대한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서산 보원사지는 2006 ~ 2017년까지 10차에 걸쳐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1단계 정비사업 추진후 집행잔액으로 추진하는 2단계 정비 설계안에 대해 심의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서산 보원사지(사적)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1
 - 지 정 일 : 1987. 7. 18.
 - ※ 보원사지 내에는 석조(보물 제102호),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법인국사보승탑(보물 제105호),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 제106호) 등 신라말에서 고려초기에 세워진 석조문화재가 있음,
- (3) 신청내용
 - 유구보호 : 표토 및 지표식생 제거(10cm), 발굴지 성토(30cm), 잔디 식재
 - 건물지 발굴현황 재현(8개소)
 - 석부재 이전 전시(6개소), 와편 이전 전시(1개소)
 - 탐방로 정비 : 주탐방로 70m(강화마사다짐), 순환탐방로 543m(강화마사다짐), 보행 야자매트 30m
 - 배수로 정비 : 토사 배수로 설치 843m, 자연석 배수로 설치(구거 및 하천 진입부)
 - 휴게 편의시설 설치 (벤치 14개소)
 - 안내판 설치 : 건물지 안내판 1개소, 석부재·와편 안내판 7개소, 방향 안내판 3개소(총 11개소)
 - 철거공사 : 구 발굴사무소 철거 1동
- (4) 신청인 의견
 -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준공 후 현재 2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사업비 12억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1. 0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00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000>

-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지역은 전체범위에서 제일 낮은 구릉지에 해당되므로 노출된 유구를 보호하고자 하면, 현존 유구 위에 복토하여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복토의 깊이는 현존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는 범위가 좋으며, 그 위에 같은 종류의 석재로 유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음)
- 관람동선은 현재 계획된 순환동선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간지주에서 석조로 가는 동선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석조물 및 와편은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음.
- 꽃피는 산골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는 석축으로 정비하여 우수가 자연스럽게 개울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감나무 등의 과실수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고 주변에 편의를 위한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전체 안내판에 발굴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을 제시함이 좋음.

마. 검토의견(보존정책과)

- 사적 보원사지 정비 1단계 사업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를 실시하고, 2단계로 당간지주 및 석조 주변에 대한 건물지 재현, 탐방로 조성 등 사업임.
- 건물지 발굴현황 재현 방안, 탐방 동선, 배수 체계, 발굴당시 수습 유구 이전 전시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바. 기타사항

○ 추진 경과

- 2006. ~ 2017. : 서산 보원사지 발굴조사
(출토유물 : 고려시대~조선시대 자기편, 기와편, 금동상, 청동장식, 철제품)
- 2018. 03. :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19. 10. : 보원사지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04. ~ 10. : 보원사지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 착공 및 준공(1단계)
- 2020. 11. ~ 2021. 4. : 보원사지 종합정비(2단계)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

○ 정비 계획

- 1단계(2020년) 정비 :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 사업면적 : 6,707m²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주 진입로 포장, 주차장 조성, 안내판 설치 등

- 2단계(2022년) 정비 : 역사공원 영역 정비
 - 사업면적 : 28,600m²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표정리 및 성토, 잔디 및 수목 식재, 탐방로 조성 등
- 3단계(2023년) 정비 : 중심건물지 영역 정비
 - 사업면적 : 18,592m²
 - 사 업 비 : 1,728백만원
 - 사업내용 : 방문자 센터(1층, 330m²) 건립, 탐방로 신설 및 경화마사토 포장, 지표정리 및 수목식재, 홍보용 콘텐츠 개발 등

사.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복원정비분과 위원) 현지조사 의견 및 제1차 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재논의
(석부재, 외편 등 이전 전시 위치 및 방법, 배수로 계획 등)
- 보존정책과 의견 수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2. 부여 나성 성곽(동나성 치부분)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부여 나성」 성곽 정비공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6~2017년 발굴조사 후 아직 정비되지 않았던 부여 나성 동나성 치성부분을 정비하고자 설계하고 수리기술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부여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 / 사적
 - 소 재 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석목리 등 일원
 - 지 정 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성곽돌 해체 및 쌓기, 채움석 쌓기 : 치성 32.9m, 성벽 101.7m
 - 성벽 상부 점토다짐 후 잔디 식재, 경사면 채움석 노출부분 성토다짐 후 잔디 식재
 - 수목제거 54주, 수목 그루터기 베기 21주
 - 성벽 내측 토사 배수로 설치 : 124.9m
 - 성벽 상부 탐방로 야자매트 깔기 : 43m
 - 동문지 2 부분 잡목제거 및 목계단(L 4.8m) 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

- 현지 자문 의견(2021.3.29. / 전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
 - 부여 동나성 동치에서 북나성으로 연결되는 약 100m 정도 구간에 대한 정비 공사 의견임
 - 정비구간의 외벽 면적이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구간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지점은 1~2단 정도 보충하여 안정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존상태가 양호한 지점과 지점 사이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형태로 수축하여 안정화

시키는 것이 좋겠음

- 동치는 잔존높이에 1~2단 정도 보축하여 안정화시키고, 치 내부는 관석으로 마감하여 유지관리상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발굴보고서 확인 요)
- 정비구간 석축부 내 토축부 외벽은 잔디 식재하여 마감하는 것이 좋겠음
- 정비구간 토축부 내부에 배수시설을 시공하여 우수가 토축부 외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정비 시 구재를 최대한 사용하되 부득이 신재 반입 시에는 잔존구간 및 기 정비 구간과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재질과 색상면을 고려하여 수급하는 것이 좋겠음

○ 현지 자문 의견(2021.6.3. / 전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

- 부여 나성은 발굴조사 결과 토축부를 구축한 후 외면에 석축부를 축조하였으므로 보수공사 시 석축부 상부 토축부의 경사면이 45°를 유지하여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음
- 보수공사 구간에서 잔존상태가 양호한 지점은 2단 정도 수축하여 안정화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것이 좋겠음
- 보수공사 시점에 해당하는 동치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2건 이상의 Tr.조사가 요망됨
- 보수공사 구간 중 6지점은 토축부 상부에서 외벽 쪽으로 상당히 넓은 상태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우수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Tr.조사를 선행하여 초축 당시의 토축부 규모 및 축조기법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음
- 동2문은 어긋문 형태로 북쪽 측벽과 연접하여 자연지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용성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생한 수목은 제거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겠음
- 보수공사 구간 성벽 상부에 자생한 외래수종은 제거하여 성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마. 검토의견(백제왕도 사업추진단)

- 현재 부여 나성 성곽 정비는 발굴조사 시 확인된 면석과 뒤채움석의 최고 높이 이하로 성벽을 정비하되, 성벽의 안정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해체와 복원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설계안은 발굴조사 보고서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단과 부여군이 검토한 안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받아 추진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해체 및 수축 부분 최소화
- 석렬은 일률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정
- 토사측구 위치는 성벽 상면과 최대한 이격 검토
- 석재 가공 및 축성방법 구체화(상세도면, 사진 첨부)
- 기존 석재와 최대한 유사한 석재 사용(성분분석 및 산지조사 필요)
- 성벽 구조 및 축성방법, 치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트렌치 조사 필요
- 단면도에 트렌치 조사 위치 표시
- 석축 상부 급경사지 유실방지 대책 수립 필요(잔디는 평떼보다는 층떼 등)
- 결과는 향후 위원회에 별도 보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 가결 10명

3.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훈련청 및 군기고 복원공사

가. 제안사항

- 전북 고창 무장면 소재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훈련청 및 군기고 복원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 8차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초석) 등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후기 지방지도에 표기된 훈련청과 군기고의 위치 및 규모가 확인됨.
- 2020년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훈련청과 군기고를 복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고창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50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91. 02. 26
- (3) 신청내용(복원공사 개요)
 - 사 업 명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훈련청 및 군기고 복원
 - 공사예정금액 : 1,405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멸실된 훈련청, 군기고 복원을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사업내용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훈련청 및 군기고(2동) 복원
<훈련청> 1동

구분	내용
평면	- 정면 3칸 측면 2칸, 정면 7.65m x 측면 6.12m, 면적 : 46.82m ²
기단	- 자연석기단 2벌대, 기단상부 : 생석회다짐, 자연석초석 (발굴초석 재사용) - 기단내밀기 : 1.20m / 정면 1.50m
축부	- 우주 Ø 330 / 평주 Ø 300 / 각기둥 240X240 - 대량 390X450 / 종량 300X330 / 충량 270X450
가구	- 5량가 익공 형태
처마 및 지붕	- 용마루: 착고 부고 위 적새 5단, 추녀, 내림마루: 당골 위 적새 3단 - 겹처마, 팔작지붕, 한식기와 중와, 막새마감, 처마내밀기 : 1.80m
창호 및 벽체	- 한식흙벽마감, 세살창호 및 당판문 설치

<군기고> : 2동 동일

구분	내용
평면	- 정면 4칸 측면 1칸, 정면 10.40m x 측면 3.52m, 면적 : 36.61m ²
기단	- 자연석기단 2벌대, 기단상부 : 생석회다짐, 자연석초석 (발굴초석 재사용) - 기단내밀기 : 0.75m / 정면 1.10m
축부	- 원기둥 Ø 270 - 대량 240X300
가구	- 3량가 민도리 형태
처마 및 지붕	- 용마루: 착고 부고 위 적새 5 쌓기, 내림마루: 당골막이 위 적새 3단 쌓기 - 홑처마, 맞배지붕, 한식기와 중와, 막새마감, 처마내밀기 : 1.32m
창호 및 벽체	- 한식흙벽마감, 화방벽설치, 판문 및 홍살 설치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1. 05. / 000 위원>

○ 훈련청

- 훈련청은 18세기 초중반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30여 년 정도 존치하다 갑오동란(1894)에 상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발굴조사 결과 정면 3칸, 측면 2칸의 구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원기준은 발굴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붕은 각종 기록을 종합하였을 때 팔작지붕으로 추정된다.
- 사례조사에서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무장읍성의 경우 온돌에 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훈련청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사료되며 간살이는 발굴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입면은 현재 뚜렷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의 관아건물을 우선으로 하되 타 지역의 훈련청 건물을 참고하여 복원설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나 판단된다.
- 그러한 측면에서 당판문 및 세살창호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군기고

- 군기고는 발굴조사 결과 1차 군기고와 2차 군기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차 군기고는 훈련청과 같이 18세기 초중반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130여 년 정도 존치하다 갑오동란(1894) 때 상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발굴조사 결과 정면 4칸, 측면 1칸의 구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원 기준은 발굴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붕은 각종 기록을 종합하였을 때 맞배지붕으로 추정된다.
- 사례조사에서 대부분의 군기고는 내부가 열린공간 구조로 되어 있다. 발굴결과와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는 열린공간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군기고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판단되며 간살이는 발굴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입면은 현재 뚜렷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의 관아건물을 우선으로 하되 타지역의 군기고 건물을 참고하여 복원설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나 판단된다.
- 그러한 측면에서 문은 판문 및 홍살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 발굴된 유적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복원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보았을 때 신재를 보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신재와 구 부재는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이를 기록화에 명확히 표시하여 후대에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 연약지반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므로 지반조사를 실시한 다음 보완이 필요하면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면 한다.
- 기록화사업을 충실히 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 2021. 04. / 000 위원 1차>

고창 무장현 관아 내의 군기고 및 훈련청 복원과 관련

- 일단 배치에 있어 유구가 나와 있어 위치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주변의 지반의 높이와 도로 등의 유구를 통해 원지형을 파악하고 주변환경과의 지형 및 도로와 마을 구성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시된 평면 및 입면 등은 유구와 기존의 유사한 건물을 참조하여 제시된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이해되나 제시된 계획안으로 복원하기에는 건물의 비례 및 입면 구성이 다소 어색함. 자료 및 근거 자료를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활용에 있어 고증된

내용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배면의 유구는 복원하고자 하는 유구와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나 발굴기관과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이와 관련 조치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존치한다는 조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서는 복원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건물 복원에 앞서 유구의 현황과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는 정비계획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21. 07. / 000 위원 2차 >

- 고창 무장현 관와 훈련청의 경우 입면 등 비례 등이 조정되고 또한 관련 근거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되었다고 생각됨.
- 대지 레벨 조정의 경우 원지반을 기초로 적절하게 계획되고 이와 함께 배수 체계도 잘 계획되었음.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문헌조사 및 발굴조사를 토대로 복원 위치 및 규모가 확인된 후 2000년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
- 전반적인 구조, 평면 및 입면은 각 지역 관아건물의 사례조사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내 건물들을 조사하여 참조한 만큼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부결
 - 발굴조사 정밀검토, 고증 및 사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복원의 적절성 확보
 -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맞게 계획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제척 1명 / 부결 9명